



유심 칩 옮겨 넣었더니 휴대폰 먹통, 왜 이러지?

단통법 개정...20% 요금할인 댄 지정 단말기만 사용 가능 대리점들 '유심기변 금지' 설명 소홀...잇단 통화 마비 피해

정부가 도입한 통신요금 '20% 요금할인 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USIM) 칩을 빼내는 순간 단말기가 먹통이 된다. 유심칩을 같은 전화기에 다시 꼽아도 사용할 수 없다.

최근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230만명을 넘어섰으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유심기변'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가 하면,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게 다반사다.

'20% 요금 할인제'는 단말기 보조금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2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보조금에 비해 할인이 높은 탓에 가입자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금 할인제에 가입한 이용

자가 유심 칩을 다른 단말기로 옮겨 꽂는 순간 통화 기능자체가 마비되는 현상에 발생한다. 이른바 '유심기변'이 금지된 것인데, 유심에 록(lock·잠금장치)이 설정돼 기존 스마트폰에서 빼내면 통화 기능이 마비된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기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이통사 대리점 대다수가 유심기변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는데다, 이통사 홈페이지에서도 '20% 요금할인'에 대한 유심기변 경고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다, 유심 칩을 자유롭게 옮기는 이용자가 증가 추세로 보이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적극

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심기변이 금지된 이유는 작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동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영향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한가지 혜택만 누릴 수 있게 하면서다.

예를 들어 20% 할인이 가능한 단말기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직접 구입한 스마트폰이나 약정기간을 넘긴 구형 스마트폰 등 지원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기기여야 한다.

하지만, 20% 요금을 할인을 받는 사용자가 유심 칩을 다른 기기에 옮겨 사용하게 되면 '이중 수혜'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받아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한 뒤 요금할인을 받은 유심 칩을 꽂아 사용하면 요금할인과 지원금 혜택을 둘다 챙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또다른 문제점에 대한 불만도 터트리고 있다. 새로 구입한 뒤 남은 이전 스마트폰에 유심을 옮겨 꽂았을 때 유심칩이 걸리는데, 이미지도 해제가

?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 사용의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통신 사업자와 사용자 비밀번호, 로밍 정보, 사용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부품으로 스마트폰 카드(USIM 카드)로 제작된다.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31)씨는 "이 부분에 대해 이동통신사 상담사와 여러번 통화를 했으나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한 뿐 막상 되지 않으니 '될 줄 알았는데 안된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이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도 약정이 끝날때까지 와이파이가용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불평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우주인 15년 체류 기록 국제 우주 정거장서

국제 우주 정거장(ISS)에 15년(5478일) 연속 우주인이 체류하는 기록이 현지시간인 지난 2일 세워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해 러시아 등 ISS 건설에 동참한 각국과 ISS에 체류 중인 우주인 6명은 이날 인간의 우주 거주 15주년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2000년 11월2일 처음으로 우주인이 지상으로부터 400km(250마일) 상공에 있는 ISS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7개국 출신 우주인 220명이 ISS를 거쳐 갔다.

미국 출신 우주인이 ISS에 가장 많이 체류했으며 러시아·캐나다·일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는 2007년 4월9일부터 19일까지 ISS에 머물면서 우주과학 실험을 수행하기도 했다.

NASA는 보수를 통해 2024년까지 ISS를 운영할 방침이다.

스콧 켈리 ISS 선장은 "ISS의 가장 큰 혜택은 우주 속으로 장기 탐사 목표를 더욱 진척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주에서 본 지구 오로라 국제 우주 정거장(ISS)에서 바라본 지구의 오로라. ISS 선장 스콧 켈리는 최근 "이 오로라의 장관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고 SNS에 사진을 올렸다. <NASA>

42일 장정 마친 '찾아가는 과학관'

광주과학관 전남·북 6곳 방문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미래 창조과학부 및 (사)한국과학관협회와 함께 진행한 2015 두드림프로젝트 과학두레마당 '찾아가는 종합과학관'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9월 10일부터 구례·무안·완도·진안·무주·장수 등 전남과 전북지역 6곳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종합과학관'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종합과학관'은 총 42일간

운영됐으며, 지역 학생들과 지역주민 등 80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과학전시물 관람, 과학실습체험, 이동전체관 등 과학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강신영 관장은 "찾아가는 종합과학관 전시장을 방문한 지역주민들과 도움을 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광주과학관이 호남지역 거점 과학관으로서 창조적인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SKT, CJ헬로비전 인수' KT·LGU 반발 "유료 방송·무선시장 독식 우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KT와 LGU+ 등 경쟁사는 정부가 추진해온 공정 경쟁·제4이동통신·알뜰폰 장려 정책과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T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T는 CJ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한 뒤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

이에 따라 KT와 LGU+는 소비자 편의 저해와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료 방송 전반에 전이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KT측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는 통신에 이어 방송까지 독점력을 확대시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KT는 "SKT의 무선시장 지배력은 유선시장에 지속적으로 전이돼 왔다"고 설명했다.000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KT망을 이용하는 85만의 알뜰폰 가입자를 SKT가 관리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해 고객의 서비스 편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LGU+측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과거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재현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MIG(Made In Gwangju) APP

장소에 맞춰 폰 설정 바꾸는 '세심 앱'

CEnA '차징온'

CEnA가 개발한 '차징온'(Chargin On)은 집과 회사, 자동차 등 공간에 따라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설정을 바꿔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밖에 와이파이(WiFi·무선인터넷) 연결을 꺼놓은 뒤 가정에서만 사용한다거나, 회사에서는 항상 진동모드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최근 자동차에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실행하거나 블루투스를 켜야 할 때 좋은 앱이다.

집과 자동차, 회사 등 한 가지 프로파일을 선택한 뒤 와이파이·블루투스·실행할 어플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화면잠금 해제 여부도 선택이 가능해, 배터리가 없을 때 자동설정된 것이 충전이 완료될 시점에 스스로 복구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CEnA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13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에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대지-180평, 건물-470평)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매가 7억

법률경매

1.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8억3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룬 54개~8층, 주택겸사무실)

2.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키지사 부근

3. 전남 화순 (토2233평,건1440평) (롯데슈퍼마트)
감정가 77억 → **최저가 27억 8천**
→1층(판매장,사무실) 2층(판매장,사무실등)
☆롯데슈퍼마트,키즈카페,파리바게트등등

4. 동구수기동 (토130평,건320평)
감정가 10억7천만 → **최저가 6억**
11층 (생활시설,창고) 2층~3층(소매점)
4층~5층(사무실)

5. 북구 유동 (토 240평, 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17억**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①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대지 144평,건 280평)	→ 매가 17억
②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터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6억)	→ 매가 20억
③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 매가 28억
④ 광안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월6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① 나주 삼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 10분,나주시청2분) (보2천,월200만)	→ 매가 3억
②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 3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임대완료)	→ 매가 8천 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5백,월 42만)	→매가 7천5백만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월33만)	→매가 4천5백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시설, 통건물)

①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③용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④ 광양 광명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매가 3천8백만
⑤서구 영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학원출구 3분 (용2천)(보3백,월32만)	→매가 3천6백만